



금속산업 노·사 2025년 산별 중앙교섭 돌입

15일 중앙교섭 상견례 ... 금속노조 “올해 노사, 일자리·공급망 보호에 힘 모아야”

금속노조가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고 2025년 임금·단체협약 투쟁을 본격 출발했다. 노조는 사용자들에 일자리·공급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와 4월 15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중앙교섭 상견례를 열었다. 금속 노·사는 교섭 대표 인사말을 주고받은 뒤 교섭 진행 원칙을 확정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협의회는 관세 전쟁, 환율 폭등에 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까지 현재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라며 “금속산업 노사 산별 교섭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중앙교섭 참가사업장 수가 줄어 비상 상태”라고 말했다.

박근형 회장은 “올해 중앙교섭 요구안은 개수 자체가 많진 않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내용은 무겁다. 기후 위기 대응의 경우,

회원사들이 곤란해한다. 중요하지만 노사 간 인식차가 확실한 요구”라며 “정치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올해 중앙교섭을 원만히 조율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이라는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올해도 금속 노사는 금속산업과 금속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합의를 꼭 이루어 내야 한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일자리·공급망 보호를 강조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현장 안전, 기후 위기는 물론이고 올해 금속 노사는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제조 산업을 위해, 또 공급망과 금속 노동자 일자리 지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며 “조기 대선도 있고 불확실성이 크지만,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3일 사용자협의회에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기후 위기 대응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1,210원 등 2025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예년처럼 매주 화요일 중앙교섭을 진행한다. 2차 중앙교섭은 사용자협의회 주관으로 4월 22일 노조 회의실에서 연다.

